

"다시 시작합니다."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다시다란 했다. 각 종단과 단체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일정으로 어느 해보다 분주했다. IMF라는 거친 파도를 헤치는 일은 고혹스러웠다. 이 가운데서도 불교는 지비행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실직자를 위한 사업·국난극복법회는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준 장엄한 대작불사였다. 조계종사태는 충격이었고 너무 큰 아픔이었다.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묻는 회두였다. 불자들은 '다시 시작하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98년 불교계의 명암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 <편집자 주>

IMF로 언 가슴에 분규의 아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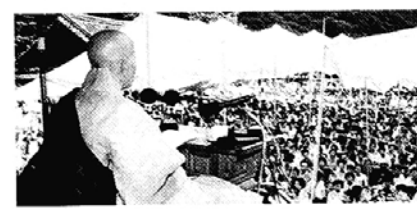
전국순회 국난극복법회 IMF경제난과 관련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국난극복기원 참회대법회가 전국 8곳에서 개최됐다. 4월 5일 강원도 신홍사를 시작으로 11월 29일 목포 보현정사까지 조계 태고 천태 진각 관음 총지 법륜종이 주관하고 본사와 불교방송 불교TV가 후원한 국난극복기원법회에는 연인원 10만여명이 동참하며 국난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몸을 바쳐 극복에 앞장섰던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평가를 받았다.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참선과 철야정진을 실시해 교계 안팎의 큰 관심을 끌었다.



IMF형 복지사업 활발 IMF관리체 재단 상황 아래 전국의 각 사찰과 복지관들은 이른바 'IMF형 복지사업'을 모범적으로 펼쳤다. 조계종의 4개 보현의집과 각 복지관 희망의집 등 13개 노숙자 시설은 타종교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불교계가 운영하는 실직자호설시설은 개신교, 천주교에 비해 수적으로는 뒤진 69곳(7월16일 현재)이었으나, 하루 수혜인원은 1만1천4백명으로 가장 많이 실시하는 등 저비용의 보살행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북한동포돕기사업 확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북한내 국수공장이 설립돼 화제를 모았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회장 도안)가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의 합의로 사리원에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한 것. 5월부터 매일 5천달러에 상당하는 20톤 규모의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다. 하루 6천 그릇의 국수생산이 가능하다. 종교계의 방북과 주민접촉이 '열풍'으로 불릴만큼 활기를 띤 가운데 불교계도 북한동포돕기 성공모금활동 등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 남북불교교류를 확대했다.



백양사 국제무차선회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8월18~22일 열린 '국제무차선회(無遮禪會)'는 사부대중 5천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야만법석(野蠻法席)'을 펼쳤다. 한국 조사선의 전통을 확립하고, 조사선을 인류문명의 죄포 제시하기 위해 열린 '국제 무차선회'는 조사선을 세계에 선보임과 동시에 한국선의 중흥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신적·물질적 공황으로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에 선사상이 한 줄기 '빛'으로 던져진 행사였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 개원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이 최첨단 서울포교 거점 사찰 관문사를 개원하고 본격적인 서울시대를 열었다. 관문사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이점을 살려 무료영화상영, 무료강좌 등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마련,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불교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단적으로 부산 삼광사, 울산 정광사, 대전 광수사 등과 함께 지방 포교 및 행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평이다.



세계 첫 '위안부기념관' 건립 세계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이 8월14일 경기도 퇴촌면 나눔의집 내에 문을 열었다. 이름없이 죽어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겨레와 전인류에 역사의 교훈을 남기고자 건립된 이 기념관은 (주)대동의 건을 무상건립, 수차례에 걸친 김영동의 산사음악회, 양심적인 일본인 및 재일동포,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문을 열어 불교계의 등재대비 실천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불교언론인회 창립 한국불교언론인회가 5월 1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했다. 초대회장에 선출된 신광식(한국방송연구원 사무처장)씨는 "불법으로 현실과제를 풀어내고 교단외호와 불교포교에 앞장서는 언론인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전국의 신문 방송 언론인 불자들의 신심과 친목을 다지고 한국 불교의 현실직시를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불교언론인회는 마포 다보빌딩 2층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98년 불교계 종단뉴스 7 나쁜뉴스 7

조계종사태 불심 명들여 조계종 제29대 총무원 장 선거에서 불거져 나온 월주스님의 3선문제가 11월 11일의 승려대회와 정화개혁회의 출범으로 이어지며 조계종 사태가 발생했다. 총무원 청사를 접수한 정화개혁회의는 중정교시를 병행한다는 명분으로 총무원, 중앙총회와 대립구도가 본격화됐다. 12월 11일 정화회의후에 대한 총무원청사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총무원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종단 사태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결국 23일 법원과 경찰의 강제집행으로 정화회의는 청사에서 퇴거됐다.



이교도 훼손 잇달아 충격 6월3일 서울 보덕사의 불상을 말치로 파괴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청주 노봉사, 제주 원명선원과 도림사, 청주 보현사, 충주와 제천지역 연세 훼손, 부산 청수암, 북한산 관음보살상, 영주 관음사 등의 불상과 보살상 파괴가 이교도들에 의해 자행됐다. 제주 원명선원의 본존불을 비롯 7백50여구의 불상파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범인검거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자세와 갈수록 조직적이고 대담해지는 훼손행위 근절은 화두로 여전히 남아 있다.



스님 도박사건 '일파만파' 조계종의 일부 스님들이 도박 혐의로 구속돼 불자들은 허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건의 파장은 일선 포교당과 지방 사찰에까지 번졌다. 폭우로 이재민이 속출하는 가운데 불거져 나온 것도 "스님들은 뭐하는 사람이냐"는 비난과 함께 사회적 충격을 배가 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상승적'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었다는 점에서 승가의 계율의식과 세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승가를 기원하는 불교도 참회법회 등 자정노력을 표하기도 했다.



불교방송-불교TV 경영난 불교방송과 불교TV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부심해 왔다. 하지만 광고 수익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방송국은 재정 수입 확충을 위해 불교방송은 9월28일 후원회 확대 개편을, 불교TV는 9월21일부터 3개월간 '제6차 주식공모'를 실시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한파와 종단사태 등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불교TV사장 정우스님은 2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경영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화재도난 훼손 잇달아 올해 역시 문화재도난이 끊이지 않았다. 2월 순천 선암사에서 탕화 3점 도난을 시작으로 갑사 대웅전 후불탱화 1점이 사라지는 등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줄을 이었다. 뿐만 아니라 훼손된 문화재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금계 귀신사 대적광전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루가 내려앉고 벽이 갈라지도록 강제 시에서는 무관심했다. 4월에는 해인사 응향각과 사운당에서 목조건축재의 천적 흰개미가 발견돼 방제대책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군승단 군법사 인사파동 7월 육군 군법사 근무지 이동과 관련, 인사초안을 육군본부에 제출하는 종단보좌관이 친소관계에 따라 법당 배치를 했다는 의혹이 인사대상 군법사들에 의해 제기됐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본부는 종단보좌관이 제출한 인사초안을 백지화하고 인사대상 법사에게 직접 전화면담을 실시해 군승단에 위임한 인사초안 제출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군승단은 11월 정기총회를 열어 선임법사회에서 인사초안을 작성기로 했다.



월간 잡지 '대중불교' 폐간 지난 5월 교계 유일의 시사종합잡지였던 월간 <대중불교>의 폐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교계의 손실로 평가된다. 우선 정론의 목소리를 냈던 매체가 사라졌음으로, 또 하나는 정신문화화 업신여기는 교계풍토가 아무런 저항없이 견재함을 과시(?)했다는 점이다. 교계 잡지 대부분에 자칫 도미노 현상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중불교>의 폐간은 이래저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만은 분명하다.



1999년 청암사 승가대학 입학시험 공고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사미니과 00명
- 시험과목 : 면접,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사미니율의
-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승려증 사본 은사스님 추천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증 양면복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본인(법명) 도장 및 사진(3×4cm) 4매
- 준비일 : 가사(오조), 장삼, 필기도구
- 도착일 : 1999년 1월 26일 화요일(음력 12월 9일) 오후 5시
- 시험일시 : 1999년 1월 27일 수요일(음력 12월 10일) 오전 9시
- 연락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번지 청암사 승가대학 ☎ (0547)437-0038
- 교통편 : 김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오전 (7시 35분, 8시 40분, 10시 10분, 11시 50분), 오후 (2시 20분, 3시 20분)

※ 자세한 문의는 전화요망

불기 2542년 12월 23일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6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00명
 - 통신과정 00명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